

한국기독교장로회
4대 문서

<제목 차례>

신앙고백 선언서	4
서론	8
제1장 하나님 신앙과 성서	9
제2장 창조와 세계	10
제3장 인간과 죄	12
제4장 예수 그리스도와 속량	13
제5장 성령과 삶	15
제6장 교회와 선교	16
제7장 역사와 종말	18
선교정책	20
제1장 서론	23
제2장 본론	23
제3장 결 론	34
사회선언지침	36
머리말	36
한국기독교장로회 사회선언지침	38
I.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시대사적(时代史的) 위치	38
II. 사회선언의 필요성	39
III. 사회선언의 신학적 근거	39
IV. 사회선언의 영역과 문제	40
교회교육정책	43
1. 우리 교단의 교육 방향	43
2. 우리 교단의 교회교육 갱신을 위한 과제들	46

신앙고백 선언서

1972

신앙고백 선언서의 공포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그러므로 이렇게 산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뚜렷한 태도다. 아무리 산업사회의 조직체 속에 매여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결코 그 조직체를 절대화하지 않는다. 시대에 따라 믿음에 대한 설명이나 강조점이 달라지고 믿는 사람의 세속에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현실에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규범과 생활의 긴장 관계는 언제나 신앙고백을 요청한다. 목숨 걸고 고백할 만한 신앙 내용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 수가 많아도 두려울 것이 없다. 카타콤 속에서도 로마 제국과 맞섰던 초대 신도들이야말로 삶과 죽음 전체로 자기 신앙을 고백한 참 그리스도인이었다. 우리가 신앙고백서 제정을 시도한 것도 초대 신도들과 같은 역경에서도 그들과 같이 단호하고 용감하게 대결할 수 있게 되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훈련하기 위함이다.

이 신앙고백서 제정에 있어서 적어도 세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다. ① 모든 전통적인 신앙고백의 분류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 ② 현대 세계 교회들의 방향에 동조한다는 것. ③ 한국 기독교장로회 전체의 공동고백이라는 것 등이다.

본 신앙고백서 안이 1972년 총회에서 채택되고 선언되기까지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1967년 제52회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신조개정연구위원회는 1968년 총회 때에 “신조에 관한 연구논문”이라는 소책자를 총회에 제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신앙고백의 본질 웨스트민스터신조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연구와 비판이었다. 1969년 총회 때에는 “현대 저명신조해설”이라는 책자를 총회에 제출하여 최근에 제정된 세계 여러 교회 신조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모범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그 내용을 해석하여 우리의 본보기로 삼았다. 1970년 총회 때에는 우리 교회로서의 신조 구성 방향과 구조와 그 내용 개요가 총회에 제출되어 그것이 시인되었다.

1971년 총회에 더 자세한 내용의 신앙고백서 안이 제출되었으나 한국기독교장로회 공동 고백으로서의 성격을 구현시키기 위한 일년 간의 광범위한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그리하여 동 위원회는 본서 내용의 철저한 재검토와 함께 그 성안된 것을 중심으로 위원들이 각 지방에 출장하여 지역적인 독회를 열고 교회 지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그 의견들을 반영시켜 최종안을 작성 총회에 제출한 것이 이 신앙고백 선언서이다.

1972년 제57회 총회에서는 그 제출된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본 교단의 신앙선언으로 공포하게 되었다.

1972년 9월 2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서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를 믿는 자를 불러내어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와 속량의 사업을 계속하신다.

한국에서 부름받은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여 교회를 이루고 겨레의 고난을 나누어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바를 밝히고 선교에 힘써야 하겠다.

성서의 진리는 언제나 같은 능력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의 변화, 새로 개발된 지식, 급변하는 사회 정황, 재래 종교의 도전, 신흥종교의 발호, 새로운 형태로 군림하는 악의 위협 가운데서 복음의 진리를 다시 밝히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길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 우리 고유의 문화도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반그리스도적 세력도 극복되며 교회의 신앙 형태와 직제 및 교파 간의 관계도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요1:14)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셨으며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하고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빌 2:6-11)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을 이기심으로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역사를 변화시키며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의 제자로서 그를 배우고 그를 닮고 그를 따라야 하겠다.

우리는 사도신경, 니케야 신조, 칼케톤 신조, 아우구스부르크 신조, 헬베틱 제1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조, 바르멘 선언, 한국 장로교회의 12신조 등 역사적 교회의 신조들을 이어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제1장 하나님 신앙과 성서

1. 삼위일체 하나님

성서가 증언하고 그리스도 교회가 계속 믿어 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자신을 먼저 계시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거룩하신 아버지로 나타나셨고 그 계시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들로 나타나셨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세 인격에서 만나며 그 하나의 인격에서 다른 두 인격과 함께 만난다. 각 인격은 서로 혼합되거나 혼동되지 않으면서도 서로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이 세 인격은 신성과 능력과 목적에서 같고 영광과 위엄에서 같으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통일을 이룬 한 하나님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은 성서가 증언하는 것과 같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며(요14:6),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에게 올 수 없고(요6:44), 아무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일컬을 수 없으며(고전 12:3,1 요4:2-3),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오신다(요14:26, 15:26).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늘도 그의 창조와 속량, 해방과 치료의 업적에서 만나며 그가 우리들 사이에 임재하심을 믿는다.

2. 성서가 증거 하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특히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교회가 걸어온 삶을 통하여 인식된다. 오늘까지 자주 일어난 무신론은 그리스도 교회의 하나님 신앙을 부정하여 왔으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말씀의 신실성과 그의 권능의 실증에서 살아 계심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용어나 제도나 실천 방식에 매이지 않으시고, 그의 창조적 힘으로 새 백성을 일으키시며 새 역사를 지어 가신다.

3. 성서의 본질

이 하나님은 신구약성서에 밝히 증언되어 있다. 구약은 39권으로 한정된 책으로서 교회가 구약시대의 예배 공동체로부터 전해 받은 것이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완성될 일을 증언한다. 신약은 초대의 에큐메니컬한 교회가 정한 27개의 문서로 된 한 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하신 일과 장차될 일에 대한 사도들의 기록이다. 우리 교회는 이 66권을 정경(正經)이라고 부른다 이 책들 밖에도 구약과 신약에 외경(外經)이라는 문서가 있지만 그것은 정경에 의하여 판단 받아야 할 책들이다.

신구약성서는 통일을 이룬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의 모습으로 증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체적으로 통일된 것이어서 그 한쪽 없이는 다른 쪽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들의 관계는 그리스도 교회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계승하면서도 그것과 구별되는 것과 같다.

성서는 각 시대에 구체적 정황에 살던 예언자와 사도들의 글이며 당시의 신앙공동체에 준 설교와 지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오심과 그의 뜻과 그의 뜻의 실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인간의 본분을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4. 성서의 권위와 해석

성서는 자신의 권위로써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적 실재를 증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진다. 교회는 이 사실을 성서의 영감이라고 불렀다(딤후 3:16-17). 성서의 영감은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며 믿는 사람의 인격을 변혁시키는 사실에 있는 것이며 기록한 자에게서 움직이던 것과 같이 오늘날도 읽고 듣는 자에게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에서 실현된다.

성서는 쓰여진 장소와 시대와 저자의 여러 조건에 제약되어 있으므로 그 언어의 문법과 사고방식과 그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조건을 정확히 연구함으로써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성서 해석에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함께 확립되어야 한다. 해석의 통일성은 성서의 각 부분이 유기체적으로 함께 지향하고 주장하는 그 내용의 흐름에서 찾아진다. 그리고 그 다양성은 교회와 그 성원이 그 통일성에 근거하면서 자기의 역사적 상황에서 성서의 말씀에 의하여 질문을 받고 또 질문을 함으로써 그 진리와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성서 해석의 다양성은 그 말씀의 현실성과 인간의 자유와 개성의 고귀성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이 무궤도한 주관주의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제2장 창조와 세계

1.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창1:1,2). 그는 “공허”와 “혼돈”상태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와 자신을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는 우주 만물과 인간과 그의 환경을 포함하는 보이는 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피조물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가 되시며 홀로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이 창조에서 단번에 일을 끝내지 않으시고 전환(轉換)과 갱신으로 완성을 향하여 인도하시며 모든 과정을 그의 뜻에 따라 다스리신다. 이 다스림에서 창조물은 사람에게 맡겨지고 사람의 공헌으로 더 나은 발전과 충실해짐이 기대된다. 창조된 자연의 가장 큰 기능은 생명을 육성 보존하는 것이며 그 과정은 과학으로 확인되는 자연법칙에 따라 설명될 수 있으나 결국 자연의 운명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계약에 포함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의 지혜와 그에게 응답하는 인격을 주셨다. 모든 창조물과 함께 인간은 창조주를 찬양하고 그를 즐기며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게 하셨다.

2. 섭리와 예정

성서는 창조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친다(마6:25-34, 행 17:14-28). 창조된

세계와 역사적 질서 안에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있으며 자연이나 인간 사회에 거듭 발생하여 사람을 괴롭히는 악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 안의 여러 요소를 서로 견제하든지 혹은 조화를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선한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실현될 것을 믿는다.

성서는 섭리와 함께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말한다(롬8:29, 9:19-29). 사람에게에는 종족, 가정, 성별, 언어, 신체의 조건과 같은 자신의 의지 결정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전 7:17-24, 요9:1-3). 이러한 질서는 선악의 가치를 초월하여 사람에게 미리 주어진 것으로서 사람의 삶을 제한한다. 그러나 각 사람은 인격적 결단으로 그런 조건들을 개선하거나 그 의미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어야 한다.

구원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안다. 예정 신앙은 숙명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은총으로 선택하시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가장 명확한 예정과 은총의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요15:16, 롬9:14-18).

3. 자연과 인간

인간은 자연을 초월하는 능력과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나 동시에 자연의 한 부분이며 자연으로부터 생의 소재와 지반을 받으며 갱신의 힘을 얻는다.

오늘날 인간은 무계획한 인구의 팽창, 무절제한 욕심과 낭비, 그리고 과학기술의 오용으로 자연을 해쳐 마침내 자연과 함께 자신의 생의 지반을 파멸시킬 위기에 직면하였다. 우리는 이제 자연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후손도 계속 자연에서 그 생의 소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자연을 배양하고 그 능력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의 혜택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고르게 분배되고 그것을 아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4.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인식

창조물의 놀라운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그의 영광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어렵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을 가리키지만 반면에 부정하며 의심나게 한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과 역사에 대한 사람의 깨달음이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롬 1:19-25). 자연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려면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5. 일반적 진리의 주님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차별 없이 대우하시고 사랑하신다(마5:45). 따라서 창세 이후로 인간이 겪은 체험과 발견도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며 제 종교, 철학, 문학, 예술, 과학을 통하여 얻는 진리들도 하나의 창조의 왕국에 속하여 생의 의미를 찾는 데 유익하며 활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같은 진리의 주님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골1:15~17). 일반적 진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사용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난 인간들에게서 기대된다(롬8:19~23).

제3장 인간과 죄

1. 인간의 본성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창1:26). 인간은 그 역사적인 삶을 육체적인 출생에서 시작하고 죽음으로써 한정 받는다. 그는 어느 피조물과도 바꿀 수 없으며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수 없는 개성의 가치를 가진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책임성과 윤리성을 가지며 또 자신의 죽음까지도 넘어서 영원을 사모한다. 그러나 원죄가 인간의 본성에 깊이 침투하여 그것을 부패하게 하고 의와 선과 사랑을 행하기에 무력하게 하였다.

2. 남녀

사람은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일남일녀를 결합시켜 공동체를 이루어 생을 즐겁고 풍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축복이다(창1:27-31, 2:24-25). 인간이 이성의 상대자와 사랑의 사귀를 위하여 가지는 성(性)은 생의 의미와 창조의 기적을 발휘하는 귀중한 특성이다. 그러므로 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불행을 초래하지 말고 그리스도 신앙으로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

3. 육체적 생명과 영혼

사람은 육체와 영혼의 통일된 생명체다. 그의 육체적 생명은 생물학적 문화적 조건으로 유지되며 또 그 영혼은 육체와 관련되어 존재한다. 영혼은 사람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의 주체이며 자신의 행동과 죽음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부모를 통하여 그 생을 받고 전 인류 공동체의 성원이 된다. 그러나 각 개인은 인류 공동체 안에서 시간적 선후와 혈연적 관계를 초월하여 직접 하나님께 속하며 책임적이고 창조적이다(롬5:12~21). 죽음은 사람을 무에 몰아넣는 강한 현실적 세력이지만(롬8:21, 고전 15:26)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 존속한다. 이 죽음의 본성과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계시되었다(고전 15:12~58).

4. 우주적 악과 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악은 보편적이며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부패와 타락의 근원이다. 그것은 개인을 조종할 뿐 아니라 사회적 세력을 이루고 전 인류에게 통일된 힘으로 역사한다. 이 세력은 하나님의 창조 업적을 파괴하려고 하며 또 각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이 보편적 악에 동참하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원칙을 거슬러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기주의와 교만에서 온다(창3:5, 롬7:5~25). 사람은 이 근원적 죄를 자기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5. 보편적 윤리 능력

창조 이후로 인류 가운데는 어진 사람과 윤리적 스승이 있어서 죄를 막고 인간성의 개선을 위해 애쓰고 정의, 진리, 자유, 평화 등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사람의 근원적 악을 결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에 비추어 보면 빈약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윤리적 노력을 그치지 않게 하셨으며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은혜의 때가 오기까지 그들을 훈련하셨다.

6. 율법의 의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시행한 율법은 고대 근동 지방의 제 민족의 법과 공통된 것이 많고 십계명도 고대 부족의 윤리적 금령과 비슷하나 제1계명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선포한 것으로 특이하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만물의 생존 원리를 가르침으로써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범법자에게 징벌을 규정하고 사랑으로 불러 모은 공동체에는 속죄와 성령의 희망을 주는 권위 있는 선언이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훈련 교사로서 장차 올 은총의 그림자이다(갈3:24).

7.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지막으로서(롬10:4) 율법을 완성하고 믿음의 길을 여셨으나 그리스도 인도 언제나 죄의 그늘에 얽매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을 쌓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계명이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생활이다(요15:17, 롬13:8~10).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 계명을 자기의 힘만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써 하는 것이므로(갈5:24~25) 교만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다.

제4장 예수 그리스도와 속량

1.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유대 나라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마1:18-2:12). 그는 병을 고치시며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뽑아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하여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다(행2:32-36, 롬1:3-4).

2.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우리와 같은 슬픔과 고난을 경험하셨으며 행동하실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나타내셨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메시아(요1:41), 육신이 되신 말씀(요1:14), 우리의 주(빌 2:11)요 구주(행5:31)시며, 하나님과 인간을 대표하는 이(히2:17-18)요 증보자(딤후2:5, 히 8:6)시다. 우리는 그에게서 율법과 예언의 완성(마5:17),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고전1:14), 신성의 찬탄(골2:9)을 본다. 그는 세상에 주어진 복음(롬2:16), 용서와 은혜(엡1:7)와 사랑(디3:4), 인간과 사회의 모퉁이 돌(벧전2:6)이시며 교회의 머리 시다(골2:19).

그는 통일된 인격으로서 참 사랑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은 성령이 확증하시고(1요 4:2) 신앙으로 고백되는(마16:17-19) 신비(엡3:4)이다.

3. 그리스도의 생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낮아지셨다. 그가 이 같이 낮아지신 것은 “남을 위한 삶” “섬김” 또 “자기희생”의 모본이다(막10:45).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 눌린 자, 죄인,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실망한 자의 친구가 되셨다. 그는 모든 악한 세력이나 불의나 거짓 등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고 죽기까지 항거하셨다(막11:15-18, 14:61, 15:2-5 평행구).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섬기는 삶 속에서 그의 지극한 사랑과 고귀한 인간성을 본다.

4.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으며 그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 겐세마네의 고난과 골고다의 십자가의 고통은 참 인간의 고통이었고 그의 고난에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과 죄의 실상 또 고독, 죽음, 비참한 상황에 처한 인간 생존의 본질이 드러나 있다(사53:5, 히4:15, 벧전2:24).

이 고난의 절정인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랑의 표현이며 창조를 위협하고 인간을 비참한 운명으로 몰아넣는 우주적 악과 죄의 세력에 대한 공격이며 또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이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이며 우리 죄의 용서와 구원의 결정적인 행동이시다(롬 5:1, 3:24, 갈1:4, 벧전 3:18).

5. 그리스도의 부활과 높아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사흘만에 무덤을 깨치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이며 역사 안에서 일어난 초자연적 사건이며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이며 역사 안에서 일어난 초자연적 사건이며 부활하신 이를 만난 자에게 인식되고 선교의 소명(눅24:32, 요20:21)으로 확증된다.

예수의 부활은 인간의 최후의 원수인 죽음이 생명에게 삼키운 것이고 정의와 사랑의 승리를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 주며 세상에 빛을 베푸는 힘이다. 그것은 약한 자의 강해짐이요(고후12:10), 낮아진 자의 높아짐이요, 무법 하게 학대를 받은 자의 권리 회복이요, 의로운 패배자의 승리요(고전 15:57) 죽은 자의 삶이다(요11:25-26).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며 교회의 주(엡5:29)요, 모든 주의 주님(계17:14)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히5:5)으로서 언

제나 일하신다.

제5장 성령과 삶

1.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역사 안에서 이룩하신 그리스도의 속량 사업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하신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우리의 한 주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2. 성령의 활동

성령은 그리스도의 속량 사업뿐만 아니라 창조와 보존의 영으로서 인간과 자연과 역사의 과정에서 활동하신다(요16:12, 롬8:9-17).

성령은 인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새 인간”을 만드신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신다. 성령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죄의식을 날카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성화하고 은혜의 감격을 더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신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모아 교회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복된 해를 전하는 선교의 일을 주동하시며 인류를 해방하며 숨은 진리를 개발하는 모든 선한 노력에서 또 역사 안에서 악에 대한 투쟁과 세계의 평화를 세우려는 운동에서 활동하신다. 성령은 우리 안에 희망을 창조하며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이 모든 일에서 성령은 통일된 일을 하며 결코 그리스도에게 모습을 일으키지 않으신다.

성령의 역사를 세상의 영으로부터 구별하는 기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요일 4:3) 있으며 그 열매가 그것을 입증한다.

3. 사랑의 삶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우리의 성격과 생활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기쁨으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벧전 2:21)살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롬12:1) “새로운 삶”을 창조한다. 성령 안의 삶은 용서받은 죄인, 잃었다가 찾아진 자의 생활로서 이웃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 그는 약한 자의 친구가 되며 압박자와 악한 권력 구조와 사회적 불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같이 항거하며 투쟁하며 눌림받은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자기희생도 아끼지 않고, 여러 사회적인 세력들을 동원하여 공헌하게 한다. 성령 안에서의 삶은 이 같은 의를 위한 헌신과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부화하신 이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으로 경험한다(고후 4:11-12).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미가 된다.

4. 성령의 은사

성령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주신다(고전 12:8-11, 28). 이것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섬길 때 드러나는 각 사람의 특수한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며 지혜, 사랑, 병 고침, 학문, 예술, 봉사 등 여러 기능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이런 은사를 교회와 사회와 모든 인류의 선을 위하여 더욱 개발하고 섬기는 일에 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성령의 은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을 때는 교만과 이기적인데 떨어져 무효하게 된다. 우리는 여러 은사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랑의 은사를 추구해야겠다(고전 12:31). 마침내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신실, 온유, 절제 등을 거둘 것을 믿는다(갈5:22-23).

제6장 교회와 선교

1. 교회의 본질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아 믿음과 사랑과 희망으로 연합된 자의 공동체며 그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 그의 부활로부터 세계 종말까지 이 역사 안에 살면서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주체다.

교회는 지역적 역사적 신학적 요인으로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다(엡4:4-5, 고전 1:13). 교회는 남녀, 연령, 종족, 사회의 계층, 문화적 차이를 넘어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인간적 요소와 제한 속에서도 거룩한 목적을 수행하며 죄인을 속량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계성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를 포함한다(엡1:22-23, 계21:22-27).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되나 세상에서 분리되지 않는다(요17:11).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신 것처럼 교회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한다. 교회는 세상에서 일하며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데서 그 거룩함을 보전한다(약1:27).

교회는 한 거룩한 공동교회로서 사도의 전승을 본질적 요소로한다. 이 사도적 전승의 모체와 기준은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 하는 성서의 말씀이며 교회의 역사적 형태나 전통이 아니다. 또 성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요구하고 그를 증거 하는 것이므로(요5:39)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2. 교회의 직능과 질서

교회는 세례받은 신도들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을 집행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친교를 가지며 믿음의 도리와 생활의 윤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봉사의 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걸고 사는 공동체다.

교회는 그 직능을 바르고 유효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조직과 신체적으로 존재하며 필연적으로 제도화된다. 교회는 그들의 신앙과 선교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직의

제도를 둔다. 교직자는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하며 신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직책을 맡았다(고전 9:1-18). 그들은 그 방면에 전문적 지식과 훈련과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 모든 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며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벧전2:9)으로서 교회의 제반 의무와 선교의 책임을 지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에게 충성을 바쳐야 한다. 그들은 성화 도중에 있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걷는 자들이다.

3. 교회의 선교

선교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준 분부이며(마28:19-20, 행1:8) 모든 민족을 찾아가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례를 베풀며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것이다.

선교는 환경과 시대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할 수 있다. 선교는 한편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신뢰하고 죄의 용서와 사랑을 확신하는 일이며 다른 편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한다.

선교에서는 가르침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선교는 인간이 변화하고 사회의 구조가 혁신되기 위한 것이며 또 진리를 선양하며 세계를 바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육적인 것이다.

선교의 범위는 세계적이며 사회 전체를 상대로 한다. 오늘과 같은 다원사회에서 선교는 국가의 기관, 사회의 집단, 생업의 부면 등 각계각층에 대해 실시되어야 하고 교회의 손이 닿지 않은 모든 곳에 개척의 길을 닦아야 한다. 선교의 때도 제한이 없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딤후4:2) “살든지 죽든지”(롬14:7-8) 계속되어야 한다. 선교의 시대는 인간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된다.

선교의 방법은 다양하며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다. 선교에는 유대인에 대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을 위해서는 이방인과 같이 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전9:19-23). 개인 단위에 선교는 기본적 방법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 구조를 이탈한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전체로서의 사회에 그리스도를 증거 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 세상을 그리스도에게 접촉시키고 변질시키려면 고정된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새로운 사회 국면에 대하여 성육신의 정신과 사랑의 실천에 철저해야 한다.

선교는 언제나 전 기독교계의 변혁과 사람의 생애의 신앙심과 문화를 혁신할 사명도 다해야 한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현실의 인간이기 때문에 일반 문화와 타종교와의 접촉은 불가피하다. 일반 문화와의 접촉에서는 마음을 열고 창조의 하나님이 설정하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선교에 활용하도록 한다. 타종교와의 만남에서는 인간의 근본 곤경을 해결하고 인류의 복지를 이룩하는 일에 협력한다.

4. 교회와 역사

교회는 역사에 대한 낙관과 비관을 초월하여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역사의 주 하나님의 행동을 본다. 이 현실의 역사가 비록 사회적 불의와 정치적 혼돈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새 질서를 세워 가신다. 그는 과학과 기술, 정치와 경제, 학문과 예술 등을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게 하고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새롭게 말씀하신다.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하며 복음의 선교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불러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지시한다.

제7장 역사와 종말

1.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부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안에 왔다. 그것은 완전한 윤리나 이상적 사회라기보다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 평화, 기쁨이다(고전 4:20, 롬14:17).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으로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역사의 과정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역사의 진전과 위기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볼 수 있다(막8:11-12, 평행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와 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와 같이 그것은 역사 안에서 자라가며 퍼져간다. 믿는 자는 암흑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골1:13).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희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나(골3:3) 그것은 삶의 새로운 힘으로써 역사를 변화시킨다. 그것은 계속 새롭게 오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이 역사의 진행에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될(고전 15:28) “새 하늘과 새 땅”(계21:1-4)에서 완성될 것이다. 믿는 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것을 기다리며 현재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는 생이 영원한 생명으로서 거기까지 이를 것을 믿는다.

2. 역사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으로 사는 사람은 그 희망 때문에 역사 안에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헌신과 희생의 삶을 가지며 피차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기쁨과 고통을 나눈다. 그는 단순히 한 질서에 안주하거나 적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정의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봉사하며 악과 불의에 대하여는 항거하고 투쟁한다. 그리스도인은 현실 역사 안에서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 가난하고 고통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 병 들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임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 속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의 제도적 개선, 조직의 민주화, 법 제도의 개혁, 자유와 정의의 수립, 비인간화를 막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런 일에서 바람직한 성과의 실현이 요원할지라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정의의 증언을 계속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의 부족을 채우시며 끝내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다.

3. 역사의 종말과 완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써 이 역사에 종말이 오고 산 자와 죽은 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는다. 그때의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것으로써 사람의 삶 전체가 “씩을 것으로부터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고전15:51-54).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희망을 통하여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 부분적으로나마 보면서 산다. 우리의 평화는 투쟁 속에 있으며 우리의 생명은 죽음의 그늘에 있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눈물과 고통과 함께 있으며 우리의 희망은 반그리스도적 세력의 위협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고 모두 회복되고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을 믿는다.

선교정책

1973

머리말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 구속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모든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20년 전에 한 교단으로 불가피하게 출발하게 된 것도 다만 이 교단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과업에 동참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믿는다.

이러한 교단의 사명은 선교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었음을 절감한 우리는 선교 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이 정책을 만들게 된 동기였다.

우리 교단이 모든 기초 작업을 끝낸 1960년대부터 교단 선교적 과업에 대한 책임 의식을 더욱 강렬하게 느끼게 되어 과거 10여 년 동안 개인으로, 단체로, 신학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 교단의 선교 정책을 마련하려는 계속 노력해 왔다.

1971년 이 문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어 총회 산하에 선교정책 연구 위원회가 발족 되었다.

그리고 1972년 총회에 그때까지 만들어진 선교 정책안을 상정시켜 전 교회의 지성과 지혜가 이것을 심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1년간 보류하고 연구 작성하여 1973년도 총회에 상정토록 하였다.

총회는 글자 하나하나를 전 회원이 축조로 심의하고 필요한 수정과 보완을 조치한 후 만장일치로 전 총회원이 기립하고 박수로써 이 정책안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이미 총회가 제정하고 채택한 “교회 교육지침서”, “사회선언지침”, “신앙고백 선언서” 등과 함께 역사적인 문서로서 그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

이제 우리 교단은 이 선교 정책이 채택되어 전국 교회에 공포하게 됨으로 본 교단이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중외에 선포하게 되었다.

새 역사의 20년을 맞이한 본 교단 제58회 총회를 계기로 하여 선교하는 교단의 자세와 결의를 갖추게 되었다.

이 선교 정책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또 교단 총회에서 채택되어 금후 우리들의 신앙

과 신학의 방향이 설정되어 한국을 복음화 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된 것을 전국 신도와 함께 기뻐하는 바이다.

이미 이 땅에 선교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우리 교단의 선교 과업을 통하여 길이 영광이 있으시기를 빌어 마지않는다.

1973년 9월 2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제1장 서론

1. 섭리의 교단

일제 말엽 우리 한국신학대학의 전신인 “조선신학교”가 탄생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 아래 공백 상태였던 교역자 양성 과업을 고군분투로 과감히 할 수 있었고, 8·15 민족 해방과 더불어 시작한 신학의 혼란기에서도 한국교회가 걸어가야 할 신학 정도(正道)의 가치를 높이 들었다. 그러나 이 선구자적인 역할 때문에 상처는 컸지만, 신앙, 양심, 학문의 3대 자유 정신과 에큐메니컬 정신과 사회 참여의 정신을 천명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는 “한국기독교장로회”를 탄생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

2. 우리의 선교상황

이러한 전통을 가진 본 교단은 새 역사 창조 20년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다가오는 70년대 80년대는 물론 21세기를 바라보는 변천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자기 반성과 결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현실에 당면하고 말았다. 남의 나라는 고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급속도로 발달하는 산업구조의 변천에 따라 인간은 생산과 기능의 기계로 되어가고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식주와 기본문제를 비롯하여 생산 전반에 걸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제 2차 산업 강화의 결과로 인간은 치명적인 공해의 위기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은 추해지고 모든 삶의 자원은 고갈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팽창으로 말미암아 이웃도 없고 대화도 단절되고 모든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혼란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거리는 넓혀져 실질적인 무신론의 세계가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오늘의 한국 교회는 신앙고백과 사회행동의 자유가 억압되고 “침묵의 지혜”(암5:13)조차 가질 수 없는 부자유한 선교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러한 위기와 혼돈, 억압과 구속, 순교까지라도 요청하게 된 선교상황을 겁낼 필요는 없다. 우리 교단은 이미 수없이 닦쳐온 안팎의 도전을 경험했고 그럴수록 우리는 이 민족과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에 앞장서서 꾸준히 선교책임을 감당해 왔다. 우리는 이 전통을 살려 금후 더욱 우리들의 선교 과업에 총진군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장 본론

1. 우리의 반성

우리 교단의 발자취를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량과 약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우리 교단이 한국사회와 교회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해 온 것은 자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 신학의 해방

우리 교단은 처음부터 한 신학을 절대화시키는 근본주의 신학에서 해방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이것은 성서 비평학을 과감히 주장한 것만이 아니라 온갖 전통과 법에 얽매인 인간성 자체의 해방을 선언해 왔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선언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신학을 우리 손으로 세워야한다는 토착적인 과업과 교회의 주체성을 주장해 옴으로 한국 신학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온 것을 자부한다.

나. 에큐메니컬 정신개척

우리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불가피하게 교단을 시작했기 때문에 교파적인 독선과 권위 의식에 사로잡힘을 처음부터 경계하고 세계교회와 유대를 주장하며 교파 간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교회의 신학의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어떤 교파라도 협조의 대상으로 존경하며 이 땅에 있어서 필요한 선교의 공동작업과 교회 일치 운동에 앞장서 온 것을 자랑하고 있다.

다. 새로운 신앙형태 개발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가진 신앙형태는 타계주의, 열광주의, 교권주의, 율법주의 등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고 있는 여러 신앙 형태에 대하여 본 교단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수육(受肉)의 원리에 의하여 현실의 의미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 정신을 사려 생을 저주하고 피안 적인 복락위주의 신앙을 극복함을 주장해 왔다. 열광주의가 가진 무속(巫俗)적 신앙을 지양함과 교권주의보다는 종의 도리, 율법주의보다는 양심의 자유를 숭상하는 신앙형태를 위하여 노력해 온 것이 우리 교단의 자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약점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라. 신앙자세의 혼란

우리 교단이 신학연구의 자유를 주장한 것이 개혁교회의 신학적 전통을 거부한 듯한 인상을 주었고, 무속적 열광주의와 현실 도피의 타계주의를 경계한 것이 신령한 은혜 사모와 경건 생활의 훈련을 등한히 한 듯 한 인상을 주었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강조한 것이 교회의 청지기 직분을 등한시함과 내세에 대한 신앙을 약화시킨 듯한 인상을 주어 신앙 노선에 혼란을 스스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마. 선교 이념의 혼란

교단 창설이래 교회의 수량적인 약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교회의 현황을 중시하고, 수와 질의 대립을 선교의 본질인양 하는 혼란을 빚어내기도 했다. 교회 수나 신도수의 증가를 강조하는 나머지 우리 교단이 새롭게 만들어 온 신앙과 신학 전통을 의심하기도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극단론까지 한편에 있는가 하면, 또한 질의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회로서 사회, 역사, 세계 등에 대한 책임이 개체 교회 발전을 기반으로 해야함을 절감하지 못한 결과로 수적인 약세를 실감하게 되는 구체적 선교의 현장의 고민을 부당하게만 보

아 버린 경향도 있어서 우리 교단 자체의 선교 이념의 혼란을 초래한 약점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들은 우리의 미래 선교에 도움을 주는 길잡이가 된다. 그것은 우리 교단의 자량을 구체적 선교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금후의 교단 노력의 동기가 되어 새로운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2. 선교의 정의와 신학

우리 교단은 이미 50년대 60년대를 지내왔기 때문에 오늘의 선교정책 문제는 금후 20년 이상 앞을 내다보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물음은 “왜 우리 교단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에큐메니칼 정신과 교회일치를 선구자적으로 외친 우리 교단이 금후 존재해야 할 이유는 우리 교단이 짊어진 선교의 지상명령 때문이다. 우리는 교단의 발전과 성공을 원하지만 한국 역사 속에 우리 기독교가 감당할 장엄한 책임을 더 앞세우고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 교단이 세계교회사에 무엇을 공헌할 수 있느냐 함에까지 묻고 대답해야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이 땅에 존재해야한다.

가. 선교의 정의

교회가 선교에 의하여 존재함은 불이 불붙음으로 존재함과 같이 우리 교단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다만 선교 때문이라 함을 알려준다.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선교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는 우리 주님의 부탁을 받은 신도로서 그 신도들이 모인 교회가 또한 그 신도들이 교회 밖, 사람들이 모이는 어느 장소에서나 실천하는 일이다.

선교는 바울 사도의 말대로 만민에게 빛을 진 심정으로(롬1:14)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우리 교단의 선교는 바울이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간절히 염원하듯이(롬9:1-3), 한국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백성이 된 자의식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나. 우리의 선교 신학

기독교 신학의 모든 학과목은 그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선교를 위한 것이 되어야한다. 비유하건대 활대와 활줄이 서로 긴장하여 내뿜는 힘에 의하여 화살이 정확하게 목표를 쫓혀지게 함이다. 따라서 선교의 신학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임을 밝히고 인간과 세계를 향한 그의 구속의지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계21:5)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돌아가는”(롬11:36)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교는 인간과 세계 속에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 교회가 바르게 이해하고 어떤 장애와 고난 속에서도 그의 전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한 신도나 교회는 어떤 신도나 교회는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도 자기의 신앙고백을 정확하게 또 과감하게 해야 하며 자기 고백을 위한 봉사와 희생을 최대의 영광으로 알게 하는 것이 선교 신학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이 정신에서 인간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나 인간을 인간 이하로 멸시하고 천대하는 일을 막으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질서를 교란 내지 파

괴하는 일체의 힘에 대결하여 싸우게 하는 것이다.

선교의 신학은 이러한 힘을 한 신도와 교회가 가지도록 계몽과 훈련을 시킨다. 그러므로 선교의 신학은 포교적 노력과 교파 팽창주의에 맞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이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 심겨지게 하며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아끼고 탄식하고 있는 자연도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침투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새 세계, 새 역사 건설을 부탁받은 교회는 선교의 특정 인물(목사, 전도사, 선교사 등) 중심의 선교를 지양하고 그 평신도를 포함한 전체 교회가 총동원해야 한다. 따라서 금후 교회의 선교 지역은 교회당만이 아니라 신도가 가는 모든 장소가 선교의 지역이 되어야 한다. 곧 선교 행위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전면적인 선교 전략을 위해서는 현대과학이 개발한 모든 전달방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교회 강단을 통한 설교를 복음적으로 감동 있게 외쳐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문학작품, 라디오, 텔레비전 등 현대 매스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길을 여는 것도 현대 선교학에 불가결한 것이다.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살리라”(엡5:16)는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는”(딤후 4:2)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3. 선교의 과제

가. 선교의 현장

복음 자체는 영구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복음을 위탁받은 이 땅의 교회는 시대와 민족에 따라 변해왔다. 사도시대 원시 교회를 중세기에서 찾을 수 없고 그렇게 자랑스럽던 종교 개혁시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오늘 이 땅에 그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당면한 오늘의 선교상황은 이 상황에 적응하는 교회의 체질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바울의 선교를 보아도 그의 발이 닿는 곳에 따라 그의 선교상황이 달랐고 따라서 그 과제와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빌립보에서 처음에는 강변 선교를 했지만(행16:13) 다음에는 옥중선교를 했다(행16:25이하).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 회당에서 선교를 했지만(행17:1,2), 아텐에서는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에게 선교를 했다(행17:18이하). 가이사랴에서는 재판정에서 선교를 했는데(행25:6 이하), 파선을 당했을 때는 바다에서도 선교했다(행27:21 이하).

이렇게 바울의 선교 현장은 항상 변천하고 있었음을 본다. 그는 놓인 상황에 따라 선교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했다.

오늘 한국교회의 선교 현장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변천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같은 도시와 농어촌이라도 오늘의 삶이 분업과 기능화됨에 따라 한 도시 안에서도 천층만층의 선교 현장을 가지고 있다. 산업사회도 생산품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선교 현장을 가지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의 선교는 이러한 선교의 현장에 대한 인식과 파악을 기초로 하지 않은 획일적인 선교 과제를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선교는 다음과 같은 선교 현장을 가지며 거기에 따라 선교 과제가 달라야 한다.

나. 농어촌 선교

급속하게 변천하는 오늘의 농어촌이라고 해도 거기에 대대로 정착하고 살고 있는 통속적

인 시민 문화 영향 아래 삶을 유지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가난하고 병들고 압박 받아 온 삶을 극복하고자 각종의 미신과 무속적인 신앙 자세에서 위로와 희망과 삶의 용기를 얻으려 하고 있다. 농어촌 교회는 그들이 가진 그릇된 신앙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선교의 과제를 분명히 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행복과 용기를 얻게 하여 교회가 서 있는 지역 사회를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과거에 농어촌 교회는 그 지역 사회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삶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농어촌 교회는 이 모든 기능을 정부나 사회단체에 넘겨주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일일생활권에 들어가게 된 한국 농어촌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본래적 과제가 있다. 교회의 선교는 “복음에 합당한 삶”(빌1:27)을 가르쳐야 한다.

첫째 : 농민과 어민들의 생활 철학을 알려주어야 한다.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가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통하여 주신 내 고장을 삶을 즐길 수 있는 낙원으로 만드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며 내 고장의 순박한 인정을 보존하며 도시 문화가 안고 오는 잘못된 도덕관과 타락한 물질주의를 시정하는 새로운 윤리를 창조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알게 해야 한다.

둘째 : 농어촌 사람들이 문화 혜택에서 멀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유 때문에 교육에 뒤떨어지고, 생활의 불편과 고난당하는 것을 신앙으로 참고 견디라고 권고할 것이 아니라 약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받는 일체의 수모와 푸대접에 반항할 줄 아는 일과 주어진 여건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비인간적인 대접과 멸시를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활과 협동 정신을 생활의 자본으로 알게 해야 한다.

셋째 : 오늘의 농어촌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연과 자연물을 아끼고 보호하는 일을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오늘 팽창하는 삭막한 도회지는 농어촌의 들과 나무를 가져가고 농어촌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새와 짐승들이 일부 부유층의 오락으로 희생당해가고 있다. 이는 농어촌 사람들의 환경의 미를 보존하며 “이리와 어린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등이 어린이에게 끌려다니는”(사11:6) 대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하여 하늘과 땅과 산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도록(사49:13) 함에서 선교의 과제를 찾아야 한다.

넷째 : 오늘의 한국 농어촌 교회는 교파 위주로 말미암아 경쟁을 경계해야 하고, 무교(巫敎)적인 광신 자세를 시정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교회가 서로 파쟁과 대립으로 싸우는 것은 아무리 교리적인 것이라 해도 그것은 선교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광신적인 자세 때문에 가정과 사회 윤리에서 이탈한 신도는 교회의 선교를 방해하는 요인임을 알게 해야 한다. 겸손, 사랑, 희생의 정신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의욕과 결단을 불러일으킴을 선교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다. 도시 선교

오늘 우리나라의 도시는 근대화가 몰고 온 각종의 죄악과 인간 문제, 사회 문제로 말미암아 비인간화의 현상이 나로 심각해가고 있음을 도시 교회는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도시 교회는 교회당 건축 열과 그 미화에 관심하고 사치한 사람들의 오락장이 되고 지성인들의 클럽으로 전락하는 것을 엄히 경계해야 한다.

오늘의 한국 도시 교회는 근대화 물결 속에 휩쓸려 내려가는 고난받는 인간들에게 오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선교의 과제로 해야 한다.

첫째 :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아래 가난으로 말미암아 소외당한 시민들의 친구가 되고 근대화 그늘 밑에서 고난받는 동포들이 이웃과 벗이 되어 주는 일에 교회는 앞장서야 한다. 가난하게 만든 요인에 눈을 뜨게 하여 가난으로 말미암는 각종의 사회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써 자기 신앙고백과 선교의 과제를 삼게 해야 한다.

둘째 : 현대의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인간의 가치와 그 품위를 상실하고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 권리와 자유를 본의 아니게 빼앗긴 사람들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고 비인간화로 이끄는 각종의 요인 제거에 교회는 항상 관심해야 한다.

셋째 : 자본주의와 결합한 권력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각종 악과 비위 사실과 불의에 대하여 교회는 예언자적인 외침을 들려주어 겨레의 운명을 스스로 짊어진 고난의 종으로 순교자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 도시에서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인간의 문화적 노작들을 최대한으로 존경함에 인색하지 말고, 그 문화의 정신은 기독교적으로 되고 그 목적은 겨레의 영광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비판하고 자극해 줌을 선교의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 교회는 도시 미화와 질서 유지에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한국 도시 교회는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교회당 내부 미화에만 관심하지 말고 교회당이 서 있는 그 지역이 그 지역 주민들의 공원이나 화단이 되게 하여 자연에서 소외당한 도시인들의 감정을 부드럽게 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교회 신도가 도시 질서 유지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도록 관심하게 해야 한다. 개인주의가 팽창한 근대 도시 생리를 이웃과의 대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키는데 교회가 솔선해야 한다.

라. 특수선교

극도로 분업화되고 기능화된 오늘의 사회는 다원화의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다. 오늘에 살고 내일을 설계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선교의 책임을 지닌 우리 교회는 선교의 대상을 이 다원화 사회 속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교회당 안에서만” 또는 “신도 대상만”이라는 종래의 선교 대상을 확대하여 군대 사회, 산업사회, 학원, 병원, 교도소, 유치장 등에서 교회의 선교 대상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대상들은 기독교 선교를 단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황금어장”이 되어 있지만 오늘 한국교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눅5:4)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다원화 사회에 대한 선교의 열을 가진 몇 사람의 개인들이 개척적인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거나와 그들을 위한 지원은 극히 미약하다. 심지어 교회란 “뭇”을 떠나 사회란 대해(大海)로 나간 실무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기는커녕 반대와 비난을 앞세우기도 한다. 따라서 오늘 한국의 '특수선교'는 교단의 지원이 없어 지극히 미약한 선교 실적을 올리고 있다. 60만 대군을 가진 군대 사회 선교를 위해서, 오늘 나날이 팽창해 가는 산업사회 선교, 나라의 지도자와 엘리트층을 기르는 학원 사회, 가장 지루하고 괴로운 인간의 삶이 있는 병원, 교도소, 유치장 등에 대한 선교는 우리 교단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당면한 선교 지역이 되어야 한다. 이런 무거운 선교의 과업을 위하여서는 개체 교회가 부흥되어야 한다. 교인 수도 늘고 교회당 수도 늘어야 한다. 그러나 이 확대되어 가는 우리의 교회 실력이 교회 선교, 교구 선교로 맺을 것이 아니라 오늘 다원화 시대가 요청하는 이런 '특수선교' 과업을 수행하면서 우리의 선교가 온 겨레를 위한 선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4. 선교구조의 재정비

이상과 같은 오늘 우리 교단이 당면한 선교의 각 현장과 지역에 따라 효과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선교의 구조 자체에 대해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다.

가. 재정비의 이유

첫째 : 우리가 가진 선교의 개념이 봉건사회 의식 구조의 유물으로써 교역자의 권위에 의한 선교만을 생각해 왔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만인 제사론”의 원리를 구체화 시키는데 약했고, 또한 민주주의 사고방식에 대한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신도 각자가 선교의 요원(要員)임을 자각하지 못했다.

둘째 :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온 선교의 이해는 지나치게 교파적인 충성심에 매여 있어 “내 교회” 또는 “내 교구”만을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따라서 “네 집 근처 다니면은 건질 죄인 많도다”라는 찬송을 부르지만 내 교회가 서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심을 깊이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교회마다 선교를 책임진 “전도부”는 다른 지방에 있는 약한 교회를 지원하고 있지만 자기 교회가 서 있는 지역 사회 개발과 복지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셋째 : 우리 교회는 “신조와 교리”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새로운 삶의 스타일 개척에 소극적이며, 더욱이 새로운 형태, 새로운 신앙 자세를 개발하는 일을 죄악시한 경향이 있게 되었다. 구체적인 한 예로 산업사회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요일 오전 11시” 예배 임수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넷째 : 지금까지 교회의 선교는 “교회당으로 오라”는 구호와 명령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한 신도가 그날그날을 어떻게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보다 교회당에만 열심히 출석하면 돈독한 신자로 인정받고 월정헌금, 주정 헌금, 성미를 충성스럽게 바치는 사람을 모범적인 신도라 했다. 그러나 교회당 안에서의 신앙과 사회 안에서의 삶이 서로 모순될 때 그 신앙의 순수성과 진실성은 의심받게 된다. 예배와 생활은 분리될 수 없다. 우리의 예배 행위는 다만 우리가 “교회당 밖에서 살아갈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당으로 오는 일”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회당에서 세속 속으로 나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 교인이 교회당 안에서 기도와 명상에 잠기게 함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명상이 뒷받침되어 세속 속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게 하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

나. 교회 갱신의 구조

이상과 같은 여러 이유에서 우리 교회 선교구조는 재정비되어야 한다. 그것은 다만 프로테스탄트의 정신 그대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Semper reformanda)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우리 교회가 당면한 국제적 정세, 사회적 정세, 국가적 정세 등 교회의 존재 이유를 반성케 하는 객관적 사정도 있지만, 전 인류와 역사의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는 구태의연한 선교구조를 고집할 것이 아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본래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기구와 제도적인 혁신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 가지고 온 농경문화 중심의 교회 기구와 제도는 오늘 도시 문화와 산업화, 공업화의 영향을 받는 농·어촌 교회들에 새로운 선교구조를 창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말미암는 각종의 위기와 불안, 극심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모든 가치관이 전도되고 지나친 이익 관계 고조 때문에 생기는 비인간화의 사실이 노출되고 있는 한 도시 문화 속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역자를 중심으로 한 교회, 같은 지방 출신 사람들이 모인 교회, 또는 교리나 신학적인 공감성 때문에 모이는 교회 구조로써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지역 사회 봉사과 교회당 주변에서 시시각각으로 생기는 각종의 인간 문제, 사회 문제에 대비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산업사회 속에서는 일요일과 교회당을 중심으로 한 선교구조로써는 불가능한 선교상황임을 알아야 한다. 산업사회를 위한 선교 활동은 기업가의 양심적 인사행정 관리 문제를 비롯하여 노동자들의 대우 개선, 직장보장 등의 광범위한 노사 문제에까지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본가의 노동 착취를 신앙으로 인내를 부탁함으로 교회가 자본주의를 변호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동맹파업과 같은 집단적인 실력 행사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권장할 수도 없다. 산업사회 선교는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롬12:2)를 밝혀 국가와 민족이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생활 철학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생활 철학을 위한 선교구조는 군대 속, 학원 속, 병원, 교도소, 유치장을 선교의 현장으로 하는 선교에도 필요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총 칼을 잡은 자들 속에서 총칼 이상의 힘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알려야 하고(시62:11)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요14:27) 밝혀야 한다.

우리의 선교는 각급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도 그 적절한 구조를 찾아 활동해야 한다. 참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한 교육은 단순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만이 아니고 한 인간의 참가치인 생활 철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찾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밝혀야 한다. 이것은 교육 행위 자체가 선교 행위로 바꾸어 질 수 있는 구조적인 갱신이 필요하다.

각종 질병으로 앓아누운 사람들을 위한 병원 선교는 교파나 교회의 관심보다 만병의 의사 되신 그리스도를 병상에서 발견하게 하는 선교구조의 창안이 있어야 한다.

교도소 선교의 구조는 인간이 저지른 각종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방향보다 참회와 용서를 실감한 새 생활의 결의로 이끄는 선교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경찰 선교는 경찰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방편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이 취조관이나 혐의자들에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밝혀주는 방향의 선교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밖에 다방 선교, 윤락여성을 위한 선교 등 각종의 특수선교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특수선교의 구조는 첫째 재래식 선교에서는 탈피해야 하고, 둘째, 선교상황과 선교 현장에 대한 사회학적 관찰과 심층 심리학이 충분히 고려된 선교라야 하고, 셋째, 그리스도의 복음이 특수선교 대상자에게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인지 과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방법의 총체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넷째, 이런 선교 과업에 종사자들은 교구 교회 선교 책임자 이상으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함은 “내가 내 몸을 쳐(말씀 앞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선교하고 나 자신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고전 9:27)

5. 힘의 개발과 동원

우리 교회가 오늘과 내일에 당면한 선교의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이 중대하고 필요한 과업을 감당할 수 이/는 힘을 개발하고 이것을 적절히 동원해야만 한다.

가. 선교 의욕

선교의 과업은 선교의 의욕 여하에 좌우된다. 아무리 훌륭한 선교의 정의, 선교신학, 선교과제의 발견, 선교구조를 재정비했다고 해도 선교할 교회 자체가 선교 의욕이 없을 때 모든 미래 계획과 현상 분석 파악은 무의미한 것이다.

선교 의욕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축복이요 은총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으로 이런 의욕을 어떤 특정인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마5:42).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전12:31)는 교훈에 따라 선교 의욕을 갈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교회의 선교 기능은 선교 의욕을 갖도록 교회가 항상 가르쳐야 한다. “빛진 자”라는 심정으로(롬1:14),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고전9:16),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렘20:9)는 심정으로 선교하는 일에 가담하고자 함이 올바른 선교 의욕이다.

우리 교회 선교 과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의욕(Passion)의 문제이다. 수량이나 질의 문제에 앞서 우리 교회가 선교 의욕에 차고 넘치느냐가 문제이다. “내가 누구를 보내랴”하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하는 선교 의욕에 찬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나. 우리의 신학교육

우리 교회의 선교 성패는 우리의 신학교육에 크게 달려 있음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의 선교 의욕과 효율적인 선교 과업 진행을 위하여 우리의 신학교육 자체가 우리 선교 정책에 부합한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신학교육은 단순히 신학 지식의 전달소나 교회 운영의 기술을 가르치는 교습소가 되어 버림을 경계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역사와 문화, 그것이 하나님 구속의 복음으로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도록 우리 교회를 총진군하는 신학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신학교육의 구조와 교과목이 재정비되어야 하며 특히 각종 선교 현장에서 이미 선교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계속적인 연수 교육이 모든 교역자에게 미칠 수 있도록 교단이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어떠한 선교상황 속에서도 후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선교의 중심을 과감하고 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평신도 훈련

오늘의 교회가 짊어진 선교의 과업은 교역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전 신도들의 일이다. 개개의 신도가 선교 요원이 되어 가정과 직장, 그들이 가는 곳, 있는 곳을 선교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교 전선은 국부전이 아니고 전면 전쟁이다. 전면적인 전도(Total Evangelism)를 위하여 신도의 인력과 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러한 전 신도들의 선교 책임 완수는 그들의 훈련 없이 불가능하다.

첫째, 신도들에게 선교 의욕을 가지게 훈련할 것이다. 복음의 빛과 세력이 왜 인간의 삶 전부에 침투되어야 할 것인가 신자 각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나갈 선교 요원임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회는 봄, 가을 심방을 앞두고 선교에 대한 기본 이론과 실재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한다. 전도는 결코 열심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다. 선교의 현장과 상황을 알아야 하고, 인간을 대하는 태도와 커뮤니케이션의 기술과 방법도 알아야 한다. 더욱이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훈련에다 성령의 도움을 받도록 자신의 경건을 관심케 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셋째, 이 훈련과 관련하여 경건의 새 해석이 필요하다. 개인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경건 훈련이 사회 전체의 구원과 서로 긴장 관계에서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라. 교회 간의 협조

오늘과 같이 다원화의 대중사회 속에서 효과적인 선교를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교파의 교회들이 서로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고 선교의 공동전선을 펴나가야 한다. 도시의 동과 구의 교회들의 협조함에서 한 도시의 선교 전략과 과업을 찾아야 하고, 도시 교회와 농어촌 교회들과의 유대와 협조 관계를 맺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선교를 효과적으로 이룩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협동 관계는 교파나 교회별로 어떤 단체의 임원진을 구성하는 따위 명목상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는 복지 사회 형성을 위한 협조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룩되어야 한다.

마. 세계 교회와의 유대

우리는 에큐메니컬 정신을 소개하고 개발해 온 교회로서 자부하고 있기에 전 세계 교회들과의 협조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본 교단과 협조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 교회와의 관계도 종래와 같이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에서 떠나 우리 교회가 주체적으로 그들이 가진 자원과 기동력을 청원하여 그들이 이 나라 선교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하며, 앞으로 어떠한 외국 교회라도 우리 교회의 선교 과업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의 협조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이러한 유대 관계에서 외국 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한 한국교회가 세계 다른 나라 선교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지도자의 질적 향상

계획성의 문제

원시 기독교는 베드로와 바울 같은 선교 과업 지도자가 있었기에 헬라 문명과 로마 제국 영토 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다. 역사적인 교회 발전은 그 교회 지도자 여하에 달렸음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오늘의 선교와 내일의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스스로 지도자가 많다는 독선도 가졌으나 오늘과 내일에 대비할 지도자는 수로나 질로써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느낀다. 교단의 신학교와 총회 교육부 및 각 노회 안에 각종 교육기관이 있었지만, 우리 교단의 선교 정책을 위한 노선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계획성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 교회는 교단 산하에 있는 각종 교육기관이 총동원되어 우리의 선교 과업이 거국적으로 되고 나아가서 세계를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이상아래 치밀하고 구체적인 지도자 양성 계획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수는 적지만 우리 교회도 초·중·고등학교 및 신학대학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의 신학교육이 아직도 고등학교 졸업생을 상대하며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대학 졸업자를 받아 훈련하는 국내 다른 교단의 신학교육 수준에 뒤떨어질 우려뿐 아니라 오늘과 같이 대학 교육 연구가 팽창하는 근대사회에서 신학교육의 수준을 선진국과 같이 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변천하는 새 시대에 광범위하고 유능한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시급히 고등교육기관(일반대학)을 통한 지도자 양성이 원만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초등교육으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 신학대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계획성을 나타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지도자 양성은 우리의 선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함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제3장 결 론

우리의 자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미 시작하신 선교에 우리 인간이 동참하는 일은 영광과 고난의 길임을 교회가 증명해 준다. 앞으로 멀지 아니하여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새 역사 창립 20개 성상을 지내오는 동안 허다한 시련을 길을 걸어왔다. 비록 출애굽은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앞에는 광양의 험하고 위험한 길이 가로 놓여 있다. 과거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길에서 저들의 대열을 정비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함과 같이 우리도 미래를 위한 선교 전선의 정비를 계속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감에는 더 큰 도전과 진통을 겪어야 함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교의 행진을 중단할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조국 역사의 기상도는 흐리고 쌀쌀하다. 그러나 “가보의 집에 둔 외투와 책”(딤후4:13) 손에 들고 순교의 각오를 하며 나선 바울의 뒤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선한 싸움 대열에서 “모두 나를 버리고 가도 주께서는 내게 계셔서 내게 힘을 주신다”(딤후4:16,17)는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도 “와서 도우라”(행16:9)는 조국의 마케도니아를 찾아가야 한다. 우리는 선교 의욕을 불일 듯 일으키고 일치된 선교의 용어와 일사불란의 계획성 아래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체적인 선교의 과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굳게 합하여”(고전1:10)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만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세세 무궁토록 있게 하자. 아멘.

사회선언지침

1971

머리말

본 교단이 예언자적 사명감에 불타서 사회선언사업을 거 교단적으로 발족하기는 이미 1965년 제50회 총회 때였다. 그 후 수많은 애로를 극복하며 진지한 연구를 계속 추진해 온 결과 사회선언의 기초를 놓는 지침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본 사회 선언지침은 1971년 제56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본 교단의 사회 선언 사업 헌장이다.

1971년 9월 24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사회선언지침

I.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시대사적(時代史的) 위치

한국 교회가 20세기의 남은 기간 동안 당면하게 될 큰 과업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국제적 대 변화에 대응하면서 어떻게 예언자적 사명과 그 기능을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한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주요한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선교사 지배기(38총회 전), 둘째, 자주의식의 확립제, 셋째, 교회의 새 구조 형성기(관리운영), 넷째, 성숙기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선교사들이 주역을 담당하던 한국기독교 장로회 형성 전(38총회 이전)까지의 요람기며, 제2단계는 자주와 에큐메니컬 노선에서의 단결을 추구한 강력한 자치 교단 형성기였다. 제3단계는 하나님의 선교에 호응하는 새 구조의 형성과 아울러 사회를 위한 교회 운영관리 프로그램의 체계화가 이룩되는 기간이다. 제4 단계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지향해 나갈 기간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1953년까지 제1단계에 있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를 제2단계였다고 하면 1970년대는 제3단계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1980년대 말까지로 제3단계의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본다. 아마 1980년대나 2000년대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제4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제4단계의 한국사회가 미래 학자들과 과학기술연구소의 전문적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인구는 5,000만 명, 평균수명은 80세, 경제면에서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불을 넘어서고 컴퓨터로 4차 산업을 개발할 것이다. 환경 면에서 주휴(週休) 2일제, 연 4주 휴가, 교육 면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어 복지사회를 지향하게 된다고 한다. 그때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로서 복지사회와 Encounter하면서 새로운 인류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될 것을 희구한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속한 교회가 현재 당면하게 되는 큰 과제는 사회적, 정치적 대 변화에 대응하여 예언자적 사명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한국 정부는 1960년대에 이미 사회적, 정치적 대 변화를 어떻게 관리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감한 행정적 개혁을 단행하였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2차에 걸친 5개년 경제계획과 관리방침으로 운영해 나갔기 때문에 산업구조, 도시구조, 재정규모 등에 굉장한 변화를 일으켰다. 물론 거기에는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아직도 사회적, 정치적 대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교회구조를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과도한 보수와 고정상황에서 탈출하여 개혁적이고 창조적인 미래를 향하여 전진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해 왔으니 실천 면에서 있어서 극히 미미했고 또 그 실천을 위한 교회구조의 변화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의 혁신적이고 개혁파적 신학은 행동 없는 창백한 추상(醜像)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고 지탄까지 받

았다.

그러기에 보수성향의 사람들은 재래적인 복고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 등에 영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사회정의를 추구하면서 새 시대를 창조해 나갈 역사적 사회적 요청이 있는 것을 잠시라도 잊지 않았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혁명적인 「예수」상(像)을 생각하고 함께 바라보면서 사회의 대 변화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화육(化肉)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의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사회를 위한 교회의 관리운영(가령 교회의 재정관리, 인사관리, 정책결정, 사회행동, 교회건물의 다목적 활용, 교회의 사회교육 등)은 1970년대에 당면한 지금부터의 대과업이다.

사회선언은 이러한 교회의 갱신과 아울러 인류의 일치, 인류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그 역사적 의의를 갖게 된다.

II. 사회선언의 필요성

교회의 사회선언은 어디까지나 사회 속의 민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중의 것, 민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교회는 다만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선언의 필요성 혹은 유가치성(有價値性)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증의(衆議)와 예지의 총화로 나타나는 사회선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선교와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근원을 밝히 알게 하고 사회의 제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필요 불가결하다.
2. 사랑과 정의를 내용으로 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민중들이 바른 태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3. 부정, 불의, 사회악 등에 대결하여 몸부림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현하는데 예언자적인 외침을 하게 함과 동시에 참여적 용기를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4. 선교와 봉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데 사회선언이 필요하다. 선교와 봉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것이 화육(실질(實質)化 혹은 結實化)되도록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사도적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데 길잡이가 된다.
5. 교회자체의 정체와 내분의 벽을 넘어뜨리고 혁신, 봉사, 일치하는 참 교회의 모습을 갖게 하는데 필요 불가결하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교회의 갱신과 아울러 분열에 의한 막힌 담을 헐어 버리는데 “교회의 일치”를 주장해 왔으나 앞으로 사회선언을 통해서 “인류의 일치”에까지 힘써야 할 것이다. 가령 양단된 국토의 통일과 사상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남북의 사상적 균열, 그리고 지방색 등으로 갈라진 한국민에게 일치된 마음과 정신으로 갱신시키기 위해 사회선언이 필요한 것이다.

Ⅲ. 사회선언의 신학적 근거

교회의 사회선언은 국가나 사회에서 작성되는 사회백서와 다른 근거를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적, 신학적 근거를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 근거는 우리 장로회의 신학적 거점이 되는 개혁파 신학에 의존하고 있다.

1.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의 전 영역에서 주권자로서 통치하시며 구속의 대업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따라서 사회는 결코 하나님의 통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2.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세상 죄를 심판하시고 또 그 죄를 정복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냈다. 우리는 자기를 중심한 그릇된 사고 방식과 교만된 죄를 꿰뚫어 보시는 심판자 하나님 앞에 자복할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그의 구속 사업에 동참하는 응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성령이신 하나님은 그의 구속사업을 지금도 계속하신다. 복합적인 사회 및 사회구조와 형클어진 인간본성의 죄악성을 꿰뚫어보신다. 사회와 분리된 인간본성이 아니라 사회제도속에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죄를 직시하면서 세상의 개혁에 우리는 부르시고 전위적(前衛的)안내역을 담당케 하신다.
4. 성경은 오늘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질서와 체제를 설명하고 비판하며 해석하는데 유일한 근거가 된다.
5.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교회는 창조주시고 심판자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건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시대의 사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첫째 : 세계내의 악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다. 그 악의 근원을 찾아 그것을 철저히 밝혀 알릴 사명을 갖는다.

둘째 : 사회적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언자적인 외침, 친교, 봉사가 있어야 한다.

셋째 : 교회는 이 세상의 핍박, 궁핍, 고난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 해방의 의미를 밝힌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 된 자들에게 해방을, 눈먼 자들에게 눈 뜸을, 눌린 자들을 놓아주는 일” (눅 4:18) 들이다.

즉 폭정 속에 안일을 찾는 비민주적 세력에 항거하여 모든 사람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럼으로써 신앙공동체는 확산해 나간다.

IV. 사회선언의 영역과 문제

사회선언의 영역을 6단위로 구분한다. 교회문제 영역, 문화문제 영역, 사회문제 영역, 정치문제 영역, 국제문제 영역 등 6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중에는 현재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로써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도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하여 그 현안 문제에 대하여 사회선언을 펴 나아갈 것이다.

1. 자기 의사에 반하여 분단된 나라의 재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자유와 행복을 찾아야 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누려야 한다. 우리는 이 통일을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선언할 것.
2.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의정치가 모든 형태의 독재체제를 대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법권의 독립으로 법에 의한 통치가 확립되어야 함을 선언할 것.
3. 권력의 남용과 이에 따른 부정부패는 제거되어야 한다. 교회는 교인들의 경건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 사회 부정에 외면할 수 없고 '종의 모습'으로 이에 도전하여 분쇄하는 십자군이 될 것을 다짐하여 선언해야 할 것.
4. 인간의 위기 중의 최대인 것인 빈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자원과 기술의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다짐한다. 동시에 국가 발전에 경제적 물량적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적 균형, 분배의 평등, 나아가서 국제적 평화, 정의의 실현을 전제해서 선언할 것.
5.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유발되는 지긋지긋한 빈부 간의 격차, 농촌과 도시의 지역 간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축소해야 하거니와 특히 인류 존망을 위협하는 공해 추방에 앞장서고 이를 위한 사회와 정부에 대한 설득을 촉진하며 선언할 것.
6. 노사 간의 평화적 협조를 이룩할 수 있도록 산업 민주화를 교회는 촉진한다. 직업적인 차별이나 유대는 폐기되고 모든 노동은 똑같은 사회적 지위로 향상되어야 할 것을 선언할 것.
7. 전통적 질서와 복종의 체계는 일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관계와 기능적 관계로 대치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전통적 지방색, 남녀 차별 등 평등 사회를 저해하는 전통적인 질서와 복종의 체계를 제거하는 데 교회가 앞장서야 함을 선언할 것.
8. 요술보다는 이성, 미신보다는 과학 유산이나 운수보다는 실력에 중심을 두고 사회교육에 힘쓰며 동시에 혼란 없이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사회교육을 동원해야 한다. 교회는 역사가 전진하는 것을 인정하고 전통의 변화는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킬 의무가 있음을 알릴 것.
9.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전 세대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적절치 않음을 알고 있다. 그들은 공기나 하천이나 대지가 계속 오염된다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된다는 것과 인구가 무한정 증가하면 식량이 부족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가족 계획이 가능하고 또 필요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들은 전쟁이 세계를 전멸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전쟁에 반대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계 질서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요구하고 그 전초지로서 학원의 민주화를 부르짖는다.

점진적이고 질서 있는 변화란 젊은 세대들에게는 의미를 잃고 있다. 그들에게는 과거란 엄청난 실패로 인식되며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 역시 지구의 파멸밖에 불려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기성세대를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논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반발이 오고 있다. 현대의 새 이민(젊은 세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대 차이를 좁히는데 교회는 앞을 가야 함을 선언할 것.

10. 우리는 교회의 일치뿐만 아니라 '인류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영속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희구하는 평화를 주시기를 희구하고 있음을 선언할 것.

교회교육정책

1969

1969년 9월 제54회 총회는 우리 교단의 교회교육정책을 인준하였다. 이것으로 본 교단 교회교육에 일보전진의 계기를 이루었다.

그 후 이 정책에 준하여 교회교육 지침서 작성에 집중적으로 노력하여 1970년 8월에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교육 지침서’를 출판하였다. 이 지침서에서 교단 교회교육의 목적을 설정하였고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신학에 기초를 둔 교육방향을 제시하였다.

1. 우리 교단의 교육 방향

가.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한다.

과거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내향적인 “교회주의”와 무당종교적인 “위복주의”와 이원론적인 “내세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앞으로 우리의 교회교육은 이와 같은 약점을 극복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려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섬기는 종 된 교회를 육성하는데 그 중심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을 섬긴다고 할 때 교회만 하는 것도, 교회가 꼭 주역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복되게 살게 하는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이다. 정치, 경제, 과학, 문학, 교육 등 각 분야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복리와 구원을 위하여서 역사하신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여러 인물, 기관, 조직도 사용하신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보좌하는 유일의 백성이요 기관이라고 자처할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교 수행에 있어서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사명을 경시해서도 아니 된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교회는 날로 변천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민첩하게 식별하고 이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뜻의 수행을 위해서 전위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놀리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새 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 뜻을 오늘도 사람다운 생을 살 수 없어 허덕이는 무지와 편견과 부정의에 억압 받는 무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의 선교 활동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깨우치고, 격려하는 한편 그들의 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악과 대항하여 이를 제거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의 완성이란 만인이 하나님에게 돌아와 그와 화해할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교회는 인류로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일을 일시도 등한히 할 수 없다.

교회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 4가지 점에 유의 해야 한다.

- 1) 교회가 그 처해있는 때와 고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교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식별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일.
- 2) 교회가 그 처해있는 고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밝혀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일.
- 3) 교회로 그 해야 할 과제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일.
- 4) 교회가 그 믿는 바를 세상에 전하되 이를 대화를 통해서 열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나. 교회의 내적 충실을 돕는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적으로 충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봉사클럽으로 전락하게 된다. 생의 내면에서 차 넘쳐흐르는 외향성이 되어야 한다. 교회교육은 먼저 교회 자체가 내면적으로 더욱 충실해지도록 봉사해야 한다. 물론 이 내적인 충실히 교회 자체의 성장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효과적으로 섬기는 종으로서의 태세를 바로 잡는 성장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내적인 충실이라고 할 때 다음의 4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1) 교회의 양적인 확장

우리 교단의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효과적인 봉사를 하려 할 때 어느 정도의 양적인 성장이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양적 성장의 부진 자체를 걱정하기 전에 우리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교회의 생활이 한국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교회가 그들의 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교회는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고 따라서 교회에 나올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 이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들이 타계 적인 신앙자세, 그리고 교회 출석 자체가 축복의 조건이 된다는 식의 사고를 강조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주는 것 같다. 흔히 우리 교회는 너무 지적인 면에 치우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는 이원론적인 타계주의나 무당종교적인 위복주의에 전락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백성들의 감정적인 욕구를 건전하게 충족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교회 내의 친교, 예배, 교육, 훈련들을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

둘째는 교회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세상을 교회에 나오라는 태도를 버리고 백성이 있는 곳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자기 발로서 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을 계층

은 얼마 되지 않는다. 대부분 교회에 나오려야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산다. 공장으로, 다방으로, 시장으로, 아파트로, 학원으로, 교회는 선교의 발길을 뻗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선교 활동을 위해서 교회는 평신도 훈련에 특별한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 교회 친교의 조성

교회란 한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형제들, 그리고 한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은 동지들의 친교 단체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흔히 냉랭하다는 말을 듣는다. 이것은 특히 도시교회 지식인들, 중산 계급에 속하는 이들이 모인 교회에서 더욱 그렇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양적인 부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의 고민과 기쁨을 서로 나눌 뿐만 아니라 생의 꿈과 야망까지라도 서로 나누는 심중에서의 친교가 이룩되도록 하는 길을 모색함은 심히 중요한 일이다.

이와 같은 친교는 개교회 단위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교파를 망라하는 친교가 되어야 하고 인류의 복리를 위해 뜻을 같이할 수 있는 모든 단체와도 대화할 수 있는 폭넓은 친교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교인을 대화할 줄 아는 그리고 팀을 이루어 일할 줄 아는 백성으로 훈련해야 한다.

3) 복음의 이해

한국교인들 중에는 기독교를 이원론적인 타계주의 그리고 무당종교적인 위복주의적으로 이해하여 온 경향이 짙다. 이와 같은 경향을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극복한 듯 하나 아직도 많은 교회가 옛 모습을 탈피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뚜렷이 내놓을만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을 교인들의 실생활과 관련하여 전수할 방안이 모색되지 못하고 있다. 빨리 우리 교단의 신앙고백이 확정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한 교육 교재들이 작성되어야 하겠다.

4) 예배의 재확립

예배에는 믿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와 함께 우리들의 생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있다. 전자는 후자를 힘있게 하며 동시에 후자가 없는 전자는 생명 없는 의식으로 끝난다.

불행히도 한국교회에 있어서 이 둘은 관련 없는 별개의 것이 되어 버렸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성한 의식으로 이해되었고 일상생활은 그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마지못해서 사는 생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세상에서의 생이야 어찌 되든지 예배를 많이 보고 충실하게 참석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예배 생활을 구축해야 한다. 일상생활이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때때로 모여서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가 이생으로 드리는 예배를 힘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깊은 예배가 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인의 생각과 생활감정에 맞는 새로운 의미 있는 예배 형태들이 많이 강조되고 보급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교회의 친교 생활, 진리를 깨우치는 일, 그리고 참 예배를 드리는 일에 혁신에

을 때 교회에 나오는 이들의 내적인 생이 더욱 더 충족하게 될 것이요 따라서 세상을 섬겨야 하겠다는 사명감은 물론 섬길 수 있는 능력은 더 성장해 갈 것이다.

2. 우리 교단의 교회교육 갱신을 위한 과제들

위에서 말한 대로 교회교육을 추진하려면 우리 교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열 한가지 과제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 1)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교단의 교회교육 원칙을 작성해야 한다. 이것의 제정에는 온 교회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2) 일차적인 중요성은 교회 성인교육 방안의 확립 및 이에 필요한 교재의 출판이다. 우선적인 교과 요목으로서는 교회의 이해, 복음과 한국인, 하나님의 선교와 한국, 세계 교회 운동, 우리 주변의 종교, 새로운 크리스천 삶의 스타일 등이다.
- 3) 신도 교육 교재 확정을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고백”을 조속히 작성해야 한다.
- 4) 평신도 훈련을 위한 지도자 훈련이 면밀히 계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역자들의 훈련과 평신도 지도자들의 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 5) 다음으로 시급한 교육 프로는 학령전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이요,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이다. 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앞으로 우리 자신의 교육원칙에 입각한 새 교재들이 편찬되어야 한다.
- 6) 이와 같은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교회는 앞으로 예배 위주의 교회 프로그램에서 탈피해야 한다. 총회는 각 교회가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연구 실현하도록 격려 조장하고 그 결과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야 한다.
- 7) 교회는 교인들의 교육에만 관심을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교회 주변에 있는 서민들의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8) 이상에서 말한 교육과정이란 언제나 민활하게 돌아가게 하려 할 때 지속적인 교육조사, 사회조사가 병행해야 한다. 총회 교육부는 한국신학대학에 있는 선교문제연구소와 밀접한 유대를 가지고 이 중요한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할 줄 안다.
- 9) 이와 같은 신도교육과 훈련을 민활히 하기 위해서는 총회에 있는 신도부와 교육부의 공통되는 과업을 합쳐서 한 부의 일로 단일화 시켜야 한다.
- 10) 이와 같은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국 요소에 지도자 훈련 센터가 있어야 한다. 센터라고 할 때 훈련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 필요한 시설의 확보와 프로그램을 집행할 수 있는 유능한 교육 간사의 확보를 말한다.
- 11) 이와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방면에 특별히 훈련받은 유능한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총회는 이미 있는 지도자 중 유능한 이들을 재훈련해서 등용하는 한편 앞날을 내다보면서 유능한 요원을 특별히 색출해서 기르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